

풍성한 삶을 산 한 사람의 생애

안나 링 피어스 여사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수백만의 가족들이 있다. - 린 윌즈스미스 -

1998년 보스톤마라톤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밝은 표정으로 모여있는 군중들을 지켜보고 있는 두 아들, 제이 티와 마이크를 안나 링 피어스는 그녀의 두 팔로 감싸 안았다. 하늘을 응시하며 얼굴에 미소를 띤 안나 여사의 얼굴을 4월의 차가운 바람이 쳤다. 남편 존과 딸 앨리가 분명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 텔레비 방송국 기자가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마이크를 갖다 데었다. “안나 부인, 그렇게 참혹한 비극이 지나고 이제 남편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참혹한 비극이라. 이 말이 잠깐 동안 그녀의 마음에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걸렸다. “2년 전에 저희 가족은 다섯 이었어요”라고 말하고 있음을 스스로 들었다. “1년 전 우리 가족은 넷이었구요. 그리고는 셋이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수백만의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니지, 이것은 비극이 아니야”라고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다.

이것은 하나의 사랑 이야기이다.

안나 부인과 남편 존의 세 아이들 중 큰 딸인 앨리는 긴 검정 잿빛 머리에 항상 미소를 띤 참으로 매력적

인 아이였다. 딸 앨리는 아주 뛰어난 하키 선수로 마사 추셀주 프린스턴의 자기네 집 가까이 있는 스노우폰드에서 두 남동생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너무나 즐겨 했다. 그러던 그 딸이 1994년 12월 23일,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이란 실로 너무나 컸다. 그뿐 아니라 그 암은 삶을 위협하는 상태라는 의사의 말이었다.

그러나 딸 앨리의 투병정신은 곧 이어 시작된 치료를 견디어 넘으로 그 어두운 예후를 밝게 만들 정도로 강했다. “항암치료에 대해 한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말을 잘 안 듣는 날이 없거든요”라며 농을 하곤 하였다.

항암치료는 앨리의 종양 크기를 줄였다. 1995년 5월에 항암치료를 끝냈을 즈음, 그 결과는 거의 기적처럼 좋았다. 침범 당한 부위를 외과적으로 수술을 한 후 암의 증후는 거의 없어졌다. 앨리는 그 다음 가을학기에도 다시 8학년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안나 여사와 남편 존에게는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부부는 병환으로 변해가는 딸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느날 딸애의 수심에 찬 모습을 본 안나 여사는 무슨 일이 있는가고 물었다. “내 친구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라고 앨리가 나즈막이 말했다. “친구들은 어떤 남자가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들이 똥똥하다고 느끼며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엄마”

때로 딸 *엘리*의 인생에 대한 신선한 관조는 부모를 놀라게 하는 말들로 이어지곤 했다. 한번은 *엘리*가 말하기를 “엄은 내가 경험해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당황한 *안나* 여사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불행하게도 이 어린 소녀의 일시적 유예는 짧은 삶으로 연결되었다. 1995년 12월에 *엘리*의 암이 재발했다는 참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지금의 하루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인식하자 *안나* 여사는 Make-A-Wish 재단(말기암환자의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경비를 대주는 재단)이 제공하는 하와이로 온 가족이 휴가 갈 것을 제안하였다. “저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라며 “다른 사람이 그러한 기회를 사용해서 여행하도록 하세요”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안나* 여사와 남편 *존*은 혹시 딸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길이라도 있나 해서 *엘리*를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데려갔다. 이러한 동안에도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놀라울 만큼 평안해 했다. “왜, 내가?”라는 말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오히려 속이 상한 사람은 *안나* 부인이었다. *엘리*는 “엄마,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가 사실인걸요 뭐” 했다.

1996년 11월 3일에 *엘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딸이 죽은 후에야 *안나* 여사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색 깔인 빨간색의 옷을 입을 것을 친구들에게 이미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슬픔에 쌓여 정신이 없는 중에서 *안나*는 나가서 붉은색 옷을 샀다. 장례식에서 그녀는 놀랐다. 어디를 보아도 붉은색 물결이었다.

*엘리*가 죽은 후로 매일 아침마다 *안나*의 머리 속에 *엘리*는 *갔어* 라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되뇌었다. 그녀는 두 아들들을 준비해서 학교에 보내고, 하키시합에 그들을 데려다 주고, 일상 필요한 물건도 사고 - 이 모든 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정신 없이 해 냈다. *나는 남은 일생동안을 울며 지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안나*는 발견하곤 했다. 남편 *존*은 평상시처럼 워체스터 부동산회사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딸의 상실은 그 역시 크게 흔들어 놓았다.

장례식 3주후 감사절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안나* 여사는 딸에 방에서 울고있는 남편을 발견하였다. 그녀가 남편을 꺼

안자 남편이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날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엘리*와 함께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 안 있어 우리 중 누군가 안녕이라고 작별인사를 하겠지요”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대꾸했다. “우리 어떤 후회도 하지 맙시다. 두 아들이 당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해요.” 부부는 잠시동안 얘기를 나눈 후 딸 *엘리*를 기념해서 순간 순간을 풍성하게 살기로 합의를 했다. 남편 *존*은 그의 말을 지켰다. 암이 딸을 데려갔지만 그 암이 자신의 가족까지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암과 투병하는 다른 어린이들을 돕는 한가지 사업을 창출해 내었다. 마사츄셀 주립대학교 암센터에 *엘리*피어스기념재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암환자 간호와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과거 마라톤 선수였던 *존*은 미래의 보스톤 마라톤대회에서 그와 함께 땀 친구들, 동료들을 모집해서 뛰는 각 사람을 돈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확보하는 일을 벌렸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엘리의 군대*라고 불렀고 *존*은 5년 후까지 50만 불을 모금하기로 약속했다.

*안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대중 앞에 나서는 것, 심지어는 고교시절 학생들에 뽑혀 학생 대표로 졸업행사를 진행시켜야 했을 때도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대신해 연설을 낭독하도록 다른 친구에게 부탁했을 만큼 꺼려했다. 그러한 그녀로서는 어린 *엘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암센터를 다시 방문할 용기조차 나질 않았다. “저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 마세요”라며 “그 애는 당신의 딸이니까요”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녀는 워체스터에 있는 노틀담학교에서 딸 *엘리*를 기념하는 식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1997년 3월 31일, *엘리*의 15번째 생일 바로 전날 *안나*는 *엘리*의 학급 친구들에게 줄 빨간 카네이션 꽃 묶음을 샀다, 하지만 그렇게도 생기발랄해 보이는 딸의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그 꽃다발을 건넨 채 그냥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엘리*가 죽은 지 꼭 11개월 후인 1997년 11월, *존*을 위시한 *엘리의 군대*는 보스톤 마라톤을 위한 훈련경주 지점인 뉴햄프셔주의 홀리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이 청명한 토요일 오후 집에서 두 아들과 함께 있던 *안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남편 *존*은 지금 어디 있지? 곧 돌아와 두 아들들을 하키게임에 데려가겠다고 말했

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자 *안나는* 게임에서 만나자는 남편의 전화일거라고 생각했다. “*안나 부인*” 전화저 쪽에서 간호사가 말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신 남편이 쓰러졌어요. 지금 곧 병원으로 오셔야 하겠습니다.” *안나는* 전화를 꼭 붙든 채 “무슨 일이 났습니까?” “지금 의료팀이 당신 남편에게 응급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간호사가 대답했다. *안나는* 피가 머리로 치솟는 것을 느끼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두 아들들을 불렀다. “얘들아, 잘 들어라.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신다. 그러나 아빠는 강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별일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했다. 놀란 두 아들들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12살 난 *티 제이*가 입을 열었다. “아빠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1년 안에 우리에게 참혹한 일들이 두 가지씩이나 일어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불안은 산더미처럼 높아 갔다. *안나는* 다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응급실 간호사와 통화를 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얼마 전에 딸아이를 잃었어요. 남편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하겠어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간호사는 곁에 있는 의사에게 전화를 건네 주었다. “*피어스 부인*” 의사는 말했다. “이 말씀밖에 드릴 다른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주하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당신의 남편을 소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안나는* 온 전신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건디기에는 너무나 벽찬 가장 힘든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거짓된 희망으로 병원에 함께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녀는 허리를 굽혀 두 아들들의 손을 각각 잡았다. “아빠는 가셨단다”라며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는 지금 *엘리*와 함께 계셔.” *티 제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 나갔다. *안나는* 힘껏 *마이크*를 끌어 안았다. 그리고는 곧 두 사람은 *티 제이* 뒤를 따라 달려 나갔다.

안나가 소리쳐 우는 아들을 붙잡았을 때 자기의 눈을 똑바로 보도록 강하게 흔들었다. 그리고는 두 팔로 두 아들들을 둘러 안고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괜찮아 질 거야. 우리는 꼭 달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점 점 더 크게 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쳤다. 반은 *티 제이*에게 반은 그녀 자신에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해!”라고.

나중에 병원에서 *안나는* 21동안 그녀의 남편이었던 존을 믿기지 않은 듯 응시하며 바라보았다. 거기 단정하고 잘생긴 50세난 남편이 이미 차디 찬 시신으로 누어있었다. *안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녀는 “존은 지금 *엘리*와 함께 있지. 그러한 그를 위해 내가 어찌하여 기뻐해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줄곧 하면서. 그녀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그녀는 느꼈다.

나중에 *안나는* 존이 마라톤 종점을 10걸음쯤 남겨두고 다발성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남편은 “*엘리*를 기념하여”라고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안나는* 남편의 영혼이 마라톤 종점의 마지막 선을 지나서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안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더욱 따사로운 햇볕을 느낄 수 있었다. 창 너머로 찬란한 가을의 천연색깔들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엘리*를 잃은 후 처음으로 그녀의 생에 대한 선명한 목적을 알게 되었다. 두 아들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암환아 연구를 지원할 재정을 마련하려 했던 남편의 목적을 이루어 냄으로써 존과 딸 *엘리*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다. *안나는* 암이 어떻게 *엘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형된 존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바로 그녀 자신이 행동을 개시할 차례였다. *안나는* 남편 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이 글은 그녀가 처음으로 많은 대중 앞에서 낭독한 것이었다.

“당신이 그랬듯이 제가 우리 두 아들들과 함께 기금을 모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작했던 *엘리*의 군대를 이끌어 갈 것을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엘리*와 *아빠의* 군대(Ali and Dad's Army)라고 바꾸어 부르렵니다. 내 사랑스러운 남편 존, 지금까지 저에게 해 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1년간 한번도 공과금을 내거나 수표를 정리해 본적이 없던 *안나는* 현재 *엘리*와 *아빠의* 군대를 위한 십자군을 인도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존

의 사망 당시 약 1만불 정도의 기금이 모금되었다. 이때만해도 그녀 남편의 목표액인 50만불 모금은 까마득해 보였다. 아직도 남은 모금을 하기 위해 *안나*는 대중 앞에서는 자신의 서투름을 극복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 *존*의 장례식을 치른 며칠 후 *안나*는 “오늘 (Today)”이라 텔레비 쇼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 나중에 그녀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주저함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기가 한 말들이 *존*과 *엘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말들이었기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왔음을 알았다.

*엘리*와 *아빠*의 군대를 위한 대변자로 봉사하는 것 외에 *안나*는 각 모금모임을 위한 보이지 않은 활동을 지치지 않고 계속하였다. 많은 시간동안 두 아들들도 부엌 식탁에 앉아 홍보물을 찍으며 엄마와 함께 밤 늦게 까지 일하곤 하였다. 모든 마라톤대회 전후에 *안나*는 *엘리*와 *아빠*의 군대에 속한 모든 선수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카드를 쓴다.

하키게임이 또 하나의 모금행사로 추가됨에 따라 입장권이 충분히 매매 되도록 하기 위해 각 게임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홍보가 되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많은 다른 일들로 *안나*는 지역의 사업인 게임 프로그램과 별도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 재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일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직접적이고 가슴 울리는 청원의 효과는 대단한 힘이 있었다. *안나*의 청취자들은 눈에 뜨이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번은 *안나*가 암으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을 위한 기념예배에 참석하였다. 각 부모는 죽은 자신의 아이에 대해 “우리 아들이었어요” 또는 “우리 딸이었어요”라는 말로 시작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했다. *안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말하기를 “*엘리*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었어요. 그 애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그 아이의 삶을 지속적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하여 참석한 모든 부모들로부터 경의를 받았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이 *안나*는 그녀의 긍정적인 메시지로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기로점에 도달해 있었다. 지금은 *안나*에게 울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 *엘리*의 16번째 생일 날 장미꽃다발을 안고 *안나*가 다니던 노틀담학교를 다

시 방문했던 때처럼. 이 때 그녀는 *엘리*의 학급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건네 주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밝은 미래를 지닌 이 소녀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행복했다. *엘리*가 그들 중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1998년 11월 18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와 그 두 동생들의 옛 감독들로 이루어진 *엘리*와 *아빠*의 군대와 보스턴부룬스 간의 하키게임에서 한 때 요원해 보이던 50만불 모금을 달성하였다. *존*의 꿈이 13개월 만에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이 돈은 마사츄셀 대학교 암센터가 어린이 암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또한 암환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각가지 대체/보완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이 되었다. *엘리*퍼어스기념 재단이라 명명된 이 재단은 다음의 주소로 연락이 가능하다.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Cancer Center,
Two Biotech, Suite 202, 373 Plantation Street,
Worcester, Mass. 01605. USA

이 글을 번역한 김수지 교수는 2001년 9월 7일-10일에 대만 대부시에서 있었던 대만암환아관리재단의 창립20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부모측 강사로 초청받은 이 글의 주인공인 *안나 링 피어스(Anna Ling Pierce)*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암환아 간호연구 논문을 발표한 김수지 교수에게 리더스다이렉트에 게재된 자기 가족에 대한 이 글을 직접 전해 주었으며,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김교수가 번역하여 본 한국호스피스협회 10주년기념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다.